

- 게다가 고령화의 진전으로 사회보장지출이 매년 1조엔을 상회하는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도 의문시
 - 일본 재정의 최대 지출항목은 사회보장 관련비용으로 2012년도의 경우 일반세출의 약 52%를 차지³⁾
 - * 사회보장 관련경비/일반세출 비율은 2000년 35%, 2005년 43%, 2012년 52%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, 2012년 전체 세출 90.3조엔 가운데 사회보장 관련경비는 26.4조엔
 - 사회보장 관련경비 등의 증가로 인해 2011년도 GDP 대비 공적채무 잔고는 211.7%로 나타났으며, 이는 선진국 가운데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임.⁴⁾
 - * 공적채무의 상당 부문은 국공채 발행으로 조달되고 있으며, 현재 국채발행 잔고의 약 95%가 일본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황임.
 - 그동안 국공채를 소화하는 자금의 원천이었던 근로자 세대의 저축이 단카이 세대의 은퇴와 더불어 수년 안에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⁵⁾도 있어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의문시
 - * 근로자 세대는 사회보장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하여 근로 당시에는 높은 수준의 저축률을 유지할 것이나, 고령자 세대가 저축 등의 금융자산을 해약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가계 금융자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
- 하지만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소비구조가 변하고 ‘보이지 않는 가족’의 등장, 고령자의 사회참여 증가,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 등에 힘입어 새로운 유형의 소비와 생산이 늘어나는 추세
 - 식료품 및 일용품, 주택과 같이 1인당 소비량에 한계가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내수가 축소되는 가운데⁶⁾ 의료, 건강, 간병, 퇴직 후의 시간적 여유를 반영한 ‘시간소비형’ 취미나 오락 활동 등에 대한 65세 이상 고령세대의 지출은 현역 세대보다 높음.

3) 厚生労働省, ‘平成24年度国の一般歳出と社会保障関係費’, 2012.01.30.

4) OECD, “Economic Outlook 90”, 이 수치는 일반정부(중앙정부, 지방정부, 사회보장기금을 합한 것)를 기초로 함.

5) 三菱総合研究所(2011), 「内外経済の中長期展望 2010-2020年度」, p.13

6) 日本経団連(2008), 「人口減少に對應した經濟社會のあり方」, p.7